

개인부채 740조 ... 1인당 1,527만원

韓銀 발표 ... 전년도보다 140만원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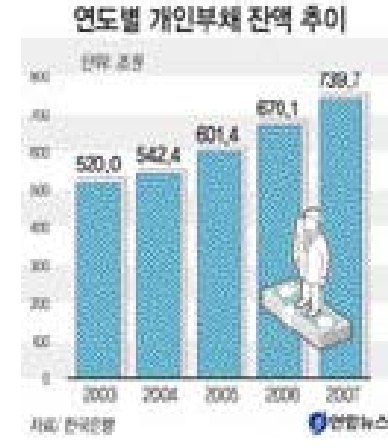
개인 금융자산도 급증 1,700조원 달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개인 빚이 1천500만원을 넘어섰다. 개인부채의 금융자산도 빠르게 증가해 개인의 금융자산 총액이 1천707조원에 달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자금순환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개인부채 잔액은 총 739조7천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10.4%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4천845만6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빚은 1천527만원에 달한다. 이는 2006년 말의 1천387만원에 비해 140만원이 늘어난 액수다. 개인의 부채잔액 증가 규모는 69조6천억원으로 전년의 68조7천억원을 능가했다.

개인부채의 부채 총액에는 가계와 함께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작년 말 현재 개인 부채의 금융자산 잔액은 1천707조1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12.2% 증가해 부채 증가속도를 높였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비율도 2006년 2.27배에서 지난해 2.31배로 개선됐다. 개인부채의 금융자산 가운데는 예금이 42.1%, 보험 및 연금 22.9%, 주식 20.1%, 수의증권을 포함한 채권이 12.4%를 차지했다. 예금의 비중은 2003년 52.2%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주식의 비중은 2003년 15.2%에서 2005년 19.2%

에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한은은 "2003년부터 주식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지난해 증시가 활황을 보인 영향으로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부채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총 금융자산 잔액은 작년 말 현재 8천13조9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5.4% 증가했다. 이를 명목국민총소득(GNI)으로 나눈 수치인 금융연관비율은 8.88배로 2006년 말의 8.18배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의 10.25배, 일본의 11.92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한편 지난해 개인부채에서는 총 71조



8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123조9천억원을 운용해 52조1천억원의 자금잉여 상태를 보였다. 자금운용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자금조달 규모가 줄어 그 차액인 잉여규모가 2006년에 비해 5조원이 증가했다. 개인의 자금운용 가운데 금융기관 예치금은 83조7천억원에서 63조원으로 급감한데 반해 유가증권 투자는 37조8천억원에서 64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소득 중상위층도 60% '노후 불안'

대부분 정부 퇴직 관련 정책 불신

국내 소득 중상위층의 60%가 노후 준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프르덴셜투자증권이 모회사인 미국 프르덴셜 금융 글로벌마켓 리서치와 공동으로 작년 말 서울 등 국내 5대 도시에 거주하는 월소득 및 금융자산 보유 상위 40% 이하의 응답자 600명(30~6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자금 마련이 '계획보다 뒤처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2%에 달했으며, 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노후자금 마련이 '계획보다 앞서 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불과했으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60%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노후 준비에 대해 '매우 자신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해, 대다수가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50~64세 응답자의 경우 노후소득으로 평균 월 210만원(연간 2천42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은퇴 시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후 자금은 평균 3억2천6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퇴시까지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 노후 자금이 은퇴 후 약 13년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수는 정부의 퇴직 관련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며 부족한 노후 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금융소외자 본격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 출범 6월부터 저소득층 대출

이명박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소액서민금융재단(휴먼에프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시작한다. 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연체 채무를 재조정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08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7일 소액서민금융재단 창립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출연한 휴먼 예금(휴먼 보험금 포함)의 관리와 운용, 휴먼예금 원 권리자에게 휴먼예금 지급,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감독 등을 맡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사금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과거 시행됐던 '베드뱅크', '희망모아'와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봄꽃 사세요' 27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봄꽃 대축제'를 찾은 고객들이 관엽류·동서양란·분재 등 각종 화훼류를 구경하고 있다. 하나로클럽은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꽃씨를,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식물영양제를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채용 규모 늘린다 업체당 7.8명 꼴 ... 지난해보다 1명 증가

올해 중견·중소기업의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함께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중견·중소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채용전망을 설문한 결과 83.9%가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5.4%, '미정'인 곳은 10.7%였다. 채용규모를 확정된 기업의 올해 채용인원은 업체당 평균 7.8명으로 지난해보다 0.9명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 중견인 수가 3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중견기업은 업체당 20.7명으로,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은 업체당 4.8명으로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업종별로 운송업(업체당 35.5명), 식음료(16.7명), 금융(14.4명), 건설(11.2명) 등에서 인제 채용이 활발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용분야는(복수응답) 연구개발·기술·생산(32.5%), 영업(27.4%), 인터넷·IT(27.4%), 경영·사무·마케팅(25.8%) 등이었다. 채용시기에는 4월(19.5%), 3월(13.4%), 6월(4.6%), 5월(4.0%) 등으로 중견·중소기업의 39.8%가 상반기에 채용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올 공무원 1,300명 채용

공무원·공기업 취업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 채용은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들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공무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및 각 군의 행정기관에 소속돼 사무·관리나 후방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7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채용인원은 1천300명이다. 신규 채용규모가 3년간 44.9% 증가했다. 국방부는 공채 166명, 특채 97명 등 모두 공무원 263명을 뽑는다. 지난해보다 113.8% 늘어났다. 모집 분야는 공채의 경우 행정, 사서, 군사정보, 기술정보, 토목, 건축, 냉난방 등 24개 분야이며, 특채는 행정, 사서, 군사정보, 기술정보, 수사, 토목, 건축 등 19개 분야다. 육군본부 공채 458명, 특채 9명, 일반계약직 29명 모두 496명을 모집한다. 해군본부 공채 223명, 특채 18명, 일반계약직 6명 등 모두 247명을 채용한다. 공군본부 공채 271명, 일반직 특채 6명, 별정직 특채 7명, 일반계약직 10명 등 모두 공무원 294명을 선발한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공무원은 급여는 물론 정년규정, 사회적 신분 등의 처우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해 구직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영애로 中企,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간담회 ... 원자재값 상승 등 경제여건 감안

국세청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상훈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

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는 또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분기 지수 1,820~2,000선까지 상승

주요 증권사 전망 ... 해외 악재 딛고 회복세 전환

주식시장이 2·4분기에 해외악재를 딛고 완전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에 잇따르고 있다. 27일 국내 12개 증권사는 올 들어 주식시장을 압박해온 미국의 신용경색 위기가 최대 고비를 넘긴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야기한 원자재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4분기에는 코스피지수가 1,820~2,0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2·4분기에 지수 상승을 견인할 호재로 ▲미국의 금리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 ▲하반기 미국경기 회복 기대 ▲국내기업 실적개선 등을 꼽았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초래한 미

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제의 고비를 늦춰서는 안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우리투자증권은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재등장할 것이라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 증권사는 신용경색 우려가 수그러들면서 유동성 증가로 인한 금융장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2·4분기 코스피지수 전망으로 1,620~2,000선을 제시했다. 현대증권도 글로벌 신용경색이 진정되고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제해 뒤 코스피지수 전망으로 1,600~1,960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대우증권은 2·4분기 코스피지수 전망치로 1,600~1,900을 제시했으며 3·4분기에는 지수가 1,780~2,100선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2·4분기 코스피지수 저점은 1,500~1,630선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는 1·4분기에 기록한 장중 저점인 1,537선 밑으로 지수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2·4분기 유망업종으로 원화약세와 임화회복에 힘입어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정보기술(IT)주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추천주로 원화약세 수혜주인 자동차와 올 들어 나뭇이 컸던 조선·금융 등을 제시했으며 은행·보험·운송·IT하드웨어·경기관련 소비재 등을 추천한 곳도 있었다. /연합뉴스

이번엔 '프랜차이즈 주유소' 추진

정부, 다양한 정유사 제품도 팔 수 있게 규제 완화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 아이디어를 내놓은 정부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대형마트의 부속 주유소뿐 아니라 주유소측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프랜차이즈형 주유소의 등장을 촉진시키고 주유소들이 다양한 정유사 제품을 손쉽게 팔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27일 정부당국과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시장의 경쟁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프랜차이즈형 주유소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5일 물가대책 때 나온 대형마트 부설 주유소의 범위를 넘어 정유사 직영이 아닌 소규모 주유소들이 모인 프랜차이즈형 석유판매회사를 만들도록 해 정유사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주유소 마트'를 시장에 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서울검사(주)	[광주공과대학] 정규직 사원(비과과검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8	062-369-0790
쌍합성상회	정규직 판매 및 배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944-2182
(주)한빛마켓	[기자동차 협력업체] 자동차 부품조립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376-9752
(유)한석건설	토목기사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3/31	062-675-9789
(주)서원건설	지금(남) 및 회계(여) 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2-512-8873
우신	정규직 타이어 금형 제작 설계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16-610-0469
스타일엔진	감각적인 MD 및 코디네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2	062-710-5220
동부화재 광주 고객센터	동부화재 광주지점 TM Manager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220-8366
(주)포유씨앤디	경리, 회계사무원(건설업체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03	011-626-1482
(주)엔지테크	프로그램 개발자 (서울/광주/부산)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4	062-675-8750
(주)한길산업	토목/환경 기술연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05	062-944-9123
ECC서광주	ECC서광주어학원 안내DESK 직원	대졸/경력무관	1200~1400	04/05	062-380-5007
(주)서민인더스트리(광주지점)	신용카드호환 전기안전관리자	고졸/경력3년	2000~2200	04/05	062-228-8000
종일산업(주)	공무과 인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4/05	062-941-7891

(광주직접리야 512-6210 제공)